

신신근(申新根)목사



신신근 목사
인천 송현기독교교회(1936년)
[출처: Tokyo Christian, AI 수정]

동양선교회는 1933년 1월 30일 경기도 광주성결교회의 포교자로 신신근(경기도 광주군 경안면 경안리)의 포교계를 신고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1881호 8면, 소화 8년 4월 19일). 이어 2월 10일에는 광주성결교회 구포교담임자 김정호를 신포교담임자 신신근으로 변경하는 포교담임자변경계를 신고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1856호 5면, 소화 8년 3월 18일). 포교계가 먼저 신고된 점을 고려하면, 광주성결교회가 신신근의 첫 부임 목회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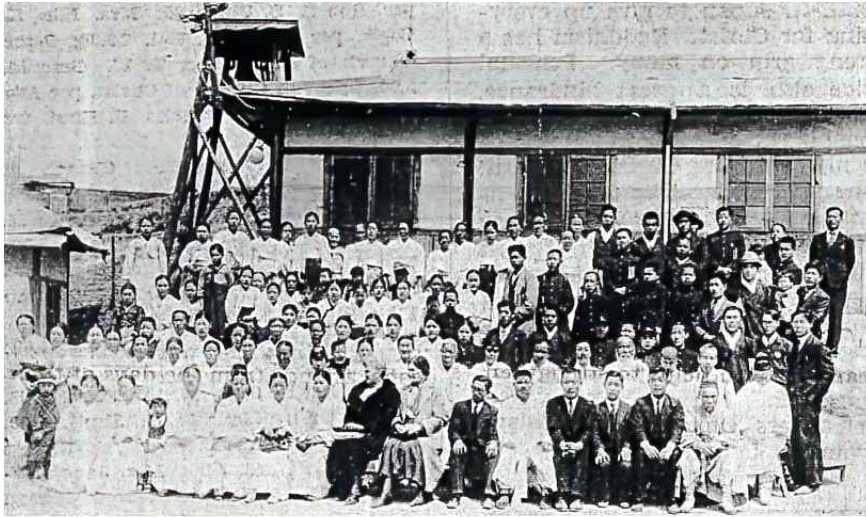
광주성결교회 교회사 기록에 따르면, 신신근은 제6대 교역자 김정호 전도사에 이어 제7대 교역자로 1932년 3월 27일부터 1936년 1월 7일까지 시무하였다. 그는 1932년에 태전리교회를 개척하였고, 1934년 1월 2일부터는 초대 교역자로 겸임하였다. 한편 그의 선배 이인범 역시 1920년에 광주성결교회를 전도사로 섬긴 바 있다.

동양선교회는 1936년 6월 22일 신신근(경기도 광주군 경안면 경안리 51번지)의 포교폐지계를 신고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2859호 6면, 소화 11년 7월 24일). 수개월 뒤인 9월 4일, 이인범은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의 포교자로 신신근(경기도 인천부 금곡리 5번지)의 포교계를 신고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2929호 3-4면, 소화 11년 10월 16일).

「도쿄 크리스천」 1932년 8월호와 1933년 8월호에 따르면, 요츠야 선교부는 이인범을 1932년 8월부터 두 달간, 1933년 2월 중순부터 한 달 이상 한국에 단기선교사로 파송하였다. 이 기간 동안 이인범이 거둔 성과에 고무된 요츠야 선교부는 도쿄 심천(후카가와)조선인기독교교회 담임자였던 이인범을 새로운 포교관리자로 한국에 파송하기 위해 성낙소를 해임하였다. 커닝햄은 1935년 12월 11일 조선총독부에 보낸 편지에서 해임 날짜를 1933년 5월 20일이라고 밝혔다.

요츠야 선교부는 1933년 6월 5일 월례회에서 이인범과 가족을 한국 상주 선교사(제2대 조선 포교관리자)로 파송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이인범은 심천조선인기독교교회를 조력자 채호(Ho Cheh)에게 맡기고 같은 해 9월 인천 송현기독교교회에 부임하였다. 그러나 성낙소가 사직하지 않았고,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도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 포교관리자변경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윌리엄 커닝햄은 조선총독부 총독(1919-27, 1929-31)과 일본 정부 수상(1932-34)을 지낸 사이토 마코토(齋藤 実)에게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노력 끝에 1936년 1월 10일 총독부가 성낙소를 소환하여 사직서를 쓰게 하였고, 포교관리자변경계가 제출될 수 있었다. 당시 신신근은 광주성결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으며, 이인범과 신신근 사이에는 이미 일정한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천 송헌기독교교회(1937년 4월)
에밀리 커닝햄(검정색 코트), 쉐멜, 담임목사 신신근(흰색 우측, 안경)

포교관리자변경
계가 받아들여지자
마자 이인범은 인
천 송헌기독교회를
광주성결교회 담임
전도사였던 신신근
에게 맡기고, 자신
은 서울 제1교회-
경성기독교회의 후
신이라 할 수 있는
-아현정기독교회
(경기도 경정부 아
현정 473번지)로

옮겨 활동하였다. 이인범은 1943년 9월 17일까지 포교관리자로 헌신하며 신사참배와 일본기독교조선교단 가입을 거부하였고, 그로 인해 심한 고초를 겪다가 1943년 9월 30일 포교폐지를 당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5024호 20면, 소화 18년 10월 30일).

반면 신신근은 이름을 평산무웅(平山武雄)으로 개명하고 1943년 9월 17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제2대 포교관리자가 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5020호 14면, 소화 18년 10월 26일). 그가 담임한 인천 송헌기독교교회가 폐쇄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일제에 협조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포교관리자가 된 신신근은 1943년 9월 30일 이인범의 포교폐지계, 아현정기독교회(이인범) 포교담임자변경계, 염리정기독교회(이난기) 포교담임자변경계, 유지옥의 포교계 및 포교담임자선정계를 제출하였다. 이난기 목사가 포교를 폐지당한 이유도 이인범과 마찬가지로 신사참배 및 일본기독교조선교단 가입을 거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송헌기독교교회가 폐쇄되지 않았다는 증거는 교회 약사에 나타난다.

1942.5 성전 11간 증축

1943.5 금곡동교회와 유동교회가 일제 탄압에 의해 본교회로 병합

1945.8.12 유진우 장로 장립

1945.8.15 민족해방(당시 유일한 교회종으로 해방 소식을 전파)

1945.11 임준식 장로 장립. (*임준식은 아현정 서울성경훈련원에서 공부했으며 1939년 4월 인천 제4회를 개척했었다. 「도쿄 크리스천」 1940년 11월호)

1945.11 송학동에 일본 감리교회를 인수. 정삼선 목사, 유진우 장로, 조의환, 유효식, 진순애 집사의 70여명의 성도를 파송하여 교회를 개척(후에 제일 장로교회가 됨)

1946.1 윤은상 집사 장로 피택

1946.12.2 신신근 목사 소천

1946.12.10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재건

송헌기독교교회가 송헌성결교회로 재건된 시점은 신신근 목사가 1946년 12월 2일 별

제한 지 8일 후였다. 신신근은 생전에 성결교회 재건을 양심상 꺼렸을 가능성이 있다.



인천 송현기독교교회 담임 신신근 목사(1936년)

송현기독교회는 요츠야 선교부가 세운 인천 제1교회로서, 인천 지역의 다른 세 교회가 이곳에서 분립될 만큼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설립자 정삼선 집사는 전기 사업자였던 경력 덕분인지 1930년대라는 이른 시기에도 예배당에 전기 시설을 갖추어 놓았다. 그는 서울성경훈련원(아현정) 졸업생으로 초대 담임자로 섬겼으나, 공식 신고된 담임자는 포교관리자 성낙소였다. 1933년 9월 도쿄에서 귀국한 이인범이 뒤를 이어 사역하다가 1936년에는 신신근이 담임을 맡았다. 같은 해 발행된 「도쿄 크리스천」은 인천 제1교회 담임목회자로서 신신근의 전신사진을 게재하였다.

신신근은 1936년 1월 7일까지 경기도 광주성결교회를 섬겼으며, 사임 후 송현기독교회로 부임한 것은 이인범의 권유 때문이었다. 송현기독교회는 규모가 있었음에도 요츠야 선교부가 목회자 월급을 보조하였다. 1936년 당시 제1교회(송현동) 교인 100여 명, 제2교회(유동) 30여 명, 제3교회(금곡동) 20여 명이었다(「도쿄 크리스천」 1936년 12월호). 선교사들은 신신근을 체구는 왜소하지만 믿음이 확고한 인물로 소개하였다.



인천기독교회 신학교 창립기념(1936년 10월 5일)

토마스 헛치(중앙), 김영배(중절모), 이인범(어린이), 신신근(안경)

1936년 송현기독교회에는 성서훈련원이 개설되어 주 4회 야간 한 시간씩 성서교육이 이루어졌다. 학생은 16명이었고, 김영배 전도자(교사), 신신근 목사, 박사은 집사가 가르쳤다. 한국에서는 인천 송현기독교회와 평북 구성

군 방현기독교회에만 유치원이 있었으며, 송현기독교회 유치원에는 170명의 어린이가 등록하였다.

1941년 종교법 시행으로 한국 선교가 어려워지자 요츠야 선교부는 임대건물에 세워 있는 8개 교회에 1941년 임대료를 일괄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송현기독교회에도



인천 송현기독교회 주일학교 학생들(1939년, 담임목사 신신근)

동일한 액수를 보냈다. 이때까지도 목사 사택 임대료를 지원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송현성결교회 약사에 따르면, 신신근은 1946년 12월 2일 별세하였고, 8

일 뒤인 12월 10일 송현기독교회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로 재건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요츠야 선교부에서 활동한 한국인 사역자 상당수가 경성성서학원(성결교) 출신이었고, 선교부와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성결교 출신이 후임자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동양선교회 성결교회들은 1943년 12월 31일 일괄 폐쇄되었다가 해방 후 재건되었는데, 송현기독교회도 그 과정에서 성결교회로 재건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요츠야 선교부의 후원이 끊긴 지 불과 5년 만에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참고문헌

광주교회 연역(<https://egwangju.org/>); *Tokyo Christian*, 1932년 8월호, 1933년 8월호.; 「조선총독부관보」 1933.3.18.; 1933.4.19.; 1936.7.24.; 1936.10.16.; 1936.11.18.; 1943.10.26.; 1943.10.30.; 1943.11.8.; 1944.12.6.; 1944.12.7.; 1944.12.9.; 『조선총독부 기록으로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조동호,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2016: <http://kccs.info/조선총독부 기록으로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pdf>); 『한국 그리스도의교회의 역사』(백종구, 조동호, 쿤란출판사, 2018);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조동호,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2017: http://kccs.info/그리스도의 교회이야기_증보판20181113.pdf);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초기 50년사(1924-1974)』(조동호, 도서출판 끌림, 2023).